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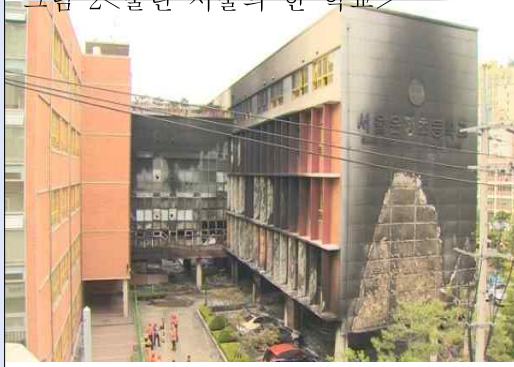
2024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 수기

작품명	안전한 우리 학교	
세부내용 (택1)	재난에 대한 직·간접적 체험	0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아이디어	
	학교시설 안전·유지관리 우수사례	
	학교재난예방 모범사례	
	기타	<i>※ 간략히 작성</i>
서론 (현황 및 문제점)	<p>나는 지난 6월 12일 아침 8시 30분쯤 학교에 있었을 때 갑자기 내 핸드폰에서 아주 큰 삐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놀란 나는 바로 핸드폰을 봤지만 안전 안내 문자 즉, 재난 문자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 읽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다. 1분이 채 지나지도 전에 같이 있던 친구들의 폰에도 나와 같은 삐 소리가 났고,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자 당황한 내 친구들과 나는 잠깐 흔들림이 멈췄을 때 재빨리 밖으로 대피했다. 대피를 하자마자 나는 핸드폰 재난 문자를 다시 읽었고 그 문자는 전북 부안군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나는 남원시에는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고 발생한다 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주 미세한 지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별일이 없겠지라며 안전 문자를 무시하고 지나간 것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처럼 보통 우리는 재난 문자가 오면 별일 아니겠지라며 넘기는 경우가 대반 수다. 이 외에도 복도에서 뛰어다니거나 친구와 놀다 다치는 경우를 학교 안에서 자주 보았다. 우리가 학교생활을 하며 자연재해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p>	
본론	<p>첫번째 상황은 갑자기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가 학교 안에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는 당황하며 그 자리를 바로 뜨려고 하거나 큰 소리로 친구들과 웅성거릴 것이다. 대부분의 지진은 빠른 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혹시 모를 붕괴를 대비해 책상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 안에 있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운동장으로 대피하고 대피할 때에는</p>	



그림 2<불탄 서울의 한 학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차근차근 이동하도록 한다. 이동할 때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고, 가방 등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체를 머리 위로 올리고 나간다. 나간 후에는 2차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선생님들의 지시를 듣고 장난치지 않고 기다린다.

두 번째 상황은 불이 난 상황이다. 만약 내가 최초 발견자라면 “불이야”를 크게 외치고,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화재 발생을 알린다. 만약 핸드폰이 있다면 직접 119에 신고하면 된다. 대피할 때는 선생님의 지시에 맞춰 밀거나 뛰지 않고 걸어가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젖은 수건 또는 옷소매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며

운동장 같은 지정된 장소로 대피한다. 만약 불이 크게 나지 않았거나 번지지 않는다면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제압한다. 소화기 사용법은

1. 소화기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3. 손잡이를 짝 움켜쥐고 분말을 불이 끌고루 덮을 수 있도록 분사한다.

RICE 처치 방법



만약 불이 몸에 옮겨붙었다면 뛰거나 몸을 흔들면 불이 더 크게 번지니 바닥에 엎드려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뒹군다. 여기서 눈과 입을 가리는 것을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폐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니 꼭 눈과 입을 막은 후 뒹굴 거러

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같이 엎드릴 수 없는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을 경우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 불을 꺼준다.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도 중요하지만, 불이 나기 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화기는 관리 방법에 따라 관리하고, 온풍기나 난로에는 불이 붙을 수 있으니 그 주위에 가연성 물질을 놔두지 않는다.

세 번째 상황은 학교에서 뛰어놀거나 체육시간에 운동하다가 다리나

	<p>팔이 뻗 상황이다. 이럴 때엔 RICE 요법을 사용하면 된다. RICE 요법이란 Rest(안정), Ice(얼음찜질), Compression(압박), Elevation(환부 높임)을 뜻한다. R은 휴식으로 약 24시간~48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쉬는 게 좋다. I는 얼음으로 손상 부위를 시원하게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다. C는 압박으로 탄력이 있는 압박붕대를 손상 부위에 사용해 조직을 안정시키고 E는 올리는 것으로 손상 부위를 수건 같은 걸로 심장 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주면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벼운 손상이면 RICE도 좋지만, 웬만하면 보건실에 가 손상 부위를 치료받는 것이 좋다. 약 24시간 이후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손상 부위가 다 붓는다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재밌게 노는 것도 좋지만 체육시간이나 미끄러운 곳 등 다칠 위험이 있는 장소나 시간에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다.</p>
<p>결론 (기대효과)</p>	<p>재난 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소 관리를 잘해서 더 큰 인명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평소에 기상청이나 뉴스 등을 자주 보며 지진을 예방하고 화재가 났을 때 위에 제시한 방법대로 대처하고 학교에서 예방훈련을 가면 열심히 장난치지 말고 하자.</p>

※ 규격·분량 : A4용지 4매 이내(사진 등 이미지는 분량 미포함)

※ 사례의 경우 본인이 실제 진행한 사례를 작성(타인 및 타기관의 사례를 인용해 제출 불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귀하